

大學에서의 教授方法 개선책

李 延 燮
(中央大 幼兒教育科)

大學의 講義는 大學教育의 質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大學講義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는 교수 개인의 수준에서 교수만이 할 수 있는 방안, 둘째는 대학의 수준에서 대학 행정 당국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머리말

‘講義’ 하면 먼저 넥타이를 맨 教授와 教科書, 칠판, 분필, 노트 필기 등등이 연상된다. 大學 講義를 말할 때 名講義와 拙講義에 대한 칭찬과 비난이 엇갈린다. 또한 大學에서의 教授·學習方法 改善를 위한 세미나와 글 등도 많다. 그러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가장 널리 쓰여 왔고,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전형적인 教授活動은 역시 분필과 칠판, 교과서 그리고 教授의 목청이다.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 누구나 그 당시의 教授들의 강의를 평가했던 말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 講義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50분 전에 끝난 것이었어”, “선생님 그 노트를 그냥 프린트 해 주시죠. 베끼는 데 지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무 뻔하고, 아리송한 것은 진실이 아니고. 무엇을 배웠지?”, “저 교수는 언제 은퇴할거야, 그때까지 학생들 고통이 심하겠군”, “그 교수는 고리타분해. 작년 강의

와 똑같아. 시험 문제까지도.” 이와 비슷한 批判은 누구나 한두번쯤 해 보았거나 지금쯤 우리 자신이 듣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嘲笑는 東西洋에 다 같이 있으며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講義란 問題點도 많고 대개는 時間浪費일—예를 들어 출석이나 부르고 이미 책에 있는 얘기를 반복하는—경우가 많다. 강의 노트 없이 강의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강의 시간에 읽을거리를 주는 것이 훨씬 낫고, 이렇게 하면 그 강의 시간의 반만으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며, 강의 내용을 프린트로 돌려주면 결국 읽는 것이 나을 테니 강의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실행된다. 그러나 강의가 이처럼 시행되어도 전국의 수만 명 교수들 대부분은 아마 자신의 大學講義에 대해 어떤 충고도 들은 바 없고, 質習을 한 바도 없으며, 훈련을 받은 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講義란 과거의 자기가 배운 교수의 본을 따거나 시행착오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의 방

법의 개선 없이 어리숙한 학생들에게 숙제를 더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

물론 이러한 지적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의 머리 속에는 유명한 강의가 뇌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 교수의 강의는 맘에 꼭 들어”라는 학생들의 평가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교수들이 명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조금씩 자기 강의를 개선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강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수 개인의 수준에서, 즉 각 교수가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둘째는 대학교 수준, 즉 대학 행정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教授 個人

大學講義의 주체는 教授이고, 學習主體는 學生이다. 學生 없는 大學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教授 없는 大學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따라서 大學講義의 改善은 大學教授 각자의 責任이다. 오직 그것만이 講義의 質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다. 大學의 質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비상 수단을 써 가면서 좋은 學生을 뽑으려고 매년 엄청난 돈을 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教授의 質을 개선하기 위해 들이는 투자는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 이제는 教授의 質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각 教授 個人이 자신의 授業의 質을 높이기 위해 努力하도록 자극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각 教授, 새로 부임했거나 오래된 教授에게도 한번쯤 생각할 기회가 되고 필자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되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을 적어 보고자 한다.

1) 말을 아끼는 教授

한 교수가 50분 강의에서 쏟아내는 말 수를 헤아려 보면 평균 1분에 150개 단어를 쓰고, 5분에 750개 단어를 쓰며, 1주일에 10시간 학부 강의를 한다면 7만 5천 개의 단어를 쓴다. 대학원까지 포함하고 저녁 강의까지 합하면 15시간을 넘어간다.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도 매주 9만

단어를 출판사에 넘길 수는 없다. 많은 교수들이 강의를 끝나면 목이 쉬고 입술이 부르르며, 그래서 지쳐버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만사를 귀찮아 한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教授란 外國의 教授보다 훨씬 일이 많다. 과별로 교수가 적으면 2~3명, 많아봤자 20명 정도다. 강의 의적인 일이 많고 행정적·사무적 지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것 저것 챙기다 보면 더욱 강의를 힘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교수나 자기의 강의에서 하는 말의 양을 조정하고 체력의 분배를 생각하여야 한다. 정신 없이 말이 많은 교수가 있는가 하면, 말 수가 너무 적어 학생의 상상의 속도보다 훨씬 느려 지루한 교수도 있다. 다같이 문제가 된다.

말을 아끼라는 말은 말의 양을 조절하라는 뜻도 있지만, 말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도 있다. 우리는 하루종일 의사 전달을 하고 산다. 대개는 남에게 말을 하며 남을 보고 얘기하지만, 남을 위해 말하는 빈도는 적다. 남에게(talk to) 또는 남을 보고(talk at) 얘기하는 것은 쉬우나 위해서(talk for) 말하는 예는 드물다. 강의는 學生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즉, 학생의 이해를 돕고 질문을 자극하며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갖고 있는 말하는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필자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교수의 말이 있다. 비록 30~40년이 지났지만.

K교수는 1961년 5·16 쿠데타가 난 후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강의를 한달간 못했다. 文化史를 담당하셨는데 교수님께서 한달만에 들어서서서 첫 말씀이 “사람을 죽여본 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는 말없이 한참 있다가 “강의를 시간이 없어서 더 할 수 없으나,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이 읽고 생각하라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일반 교양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 공부를 학생들이 아마 무척 열심히 했었던 것 같다. 혹자의 정치적 평가말고도 어느 교수의 열강은 지금도 기억되고 자랑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바로 그러한 강의를 해야 한다.

2) 個人別 面接을 통한 教授

필자가 학부 학생을 가르친 경험에 더하여 내 자신이 참 좋은 강의를 했다고 스스로 느낀 것 중의 한 강좌는 외국에 있을 때 학생 하나하나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일일이 면접을 하였던 때이다. 각 학생이 내 강의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지금 당장 그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폈다. 가르치는 과목이 아동 심리, 청소년 심리 등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면접 결과는 내용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 학생은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집에서 부모들이 동생을 편애하여 그로 인한 한 맺힌 사연으로 그의 감정은 적개심과 분노로 확산 있었다. 나는 그 학생에게 숙제로 형제간의 갈등이라는 제목과 읽을 거리를 주었다. 한 학생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미국 여학생을 무척 좋아하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하여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인데 심란하여 공부를 못할 정도였다. 이 학생에게는 내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에게는 사랑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읽고 발표할 기회도 주었다. 한 학생은 소년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난 뒤 소년원의 여러 실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에게는 소년 범죄를 탐구할 기회를 주었다. 60명 학생이 쓴 레포트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며 모두 자신의 개인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열심이었다.

한국에 와서 가르칠 때에는 이 방법을 그대로 쓰지는 못했다. 읽을거리가 원서인 경우가 많고 담당 학과목이 많은데다 학생 수가 100명이 넘는 강좌도 있어 엄두가 안 난다. 교육 조교도 없고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동료들의 인정도 없다. 그러나 이 방법, 즉 교수 내용을 가능한 개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한 학생은 5共 시절 학생 운동의 핵심 멤버였었다. 체포·구금·사면·복교를 겪으면서 교수는 일간망둥이이며 체제에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부르조아의 지성인쯤으로 아는 학생이었다. 질문도 뼈뼉하고 매사에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막심 고리개의 어린 시절’, ‘아돌프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도 시키고 레포트

도 쓰게 하고 그의 다른 원서도 주었다. 그 학생은 열심히 했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최소의 공통 과제를 갖게 되었다. 지난 학기에는 또 이런 류의 학생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자기 것이라 생각했다. 버릇도 없고 질문도 짜증스럽게 하는 학생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는 탁아소를 방문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게 했다. 의외로 잘했고 학급의 반응도 좋았다. 내 기준에도 훌륭했다. 몇일 전 방학중 길에서 나와 마주쳤을 때 밝게 인사를 하였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했다.

나는 또 스넥 코너 부엌에서 일당 6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인터뷰 때 알았다. 어려움 속에서 악착같이 사는 이 학생이 학급에 좀 늦었다고 해서 야단칠 수는 없었다. 하루는 그 학생이 햄버거에 콜라 한 병을 가져왔다. 그것은 몇 만원짜리 식사보다 더 맛이 있었다.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학생을 하나하나 만나보면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로의 인사업도 통상 수준에서 한 단계 높아지며, 강의 내용 중에도 삶에 관한 얘기가 슬쩍슬쩍 끼어들어 온다. 마치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교육학자들은 개별화라는 말을 좋아한다. 학생에 따라 수업 목표를 개별화하고 흥미에 따라 수업 내용을 개별화하며 학습의 진도에 따라 평가를 개별화하라고 한다. 또한 학생의 개인 문제에 연결될 때 학습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한다. 이 모든 말들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학생을 인터뷰하는 것이다. 적어도 각 교수가 맡고 있는 指導 담당 學部學生들만이라도 면접하고 나면 교수-학생 간의 냉랭한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일은 필자가 아동 심리를 가르치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과목도 개인과 관계를 맺는 문제는 있으리라 본다.

3) 專門的 倫理綱領을 遵守하는 教授

각 교수는 전문적 윤리 강령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상식을 지켜야 한다. 교수 윤리 강령은 없다. 그것이 없는 것은 모든 교수는 윤리를 지킨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찰과 견문으로 이 윤리 강령이 필요할 정

도로 교수 개인적으로 실수를 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교실은 신성한 곳이다. 그 수업 시간은 교수와 학생의 시간이며 교수 개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수가 수업 시간을 학생의 동의없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여담을 자주한다면 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학생을 깔보거나 개인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를 강매하는 행위, 특정 학생에 대한 지나친 편애, 교실에서 상스러운 말을 노골적으로 쓰는 경우, 매년 시험 문제가 똑같아 강의록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 학생의 지탄을 받으니 살려달라는 식의 교수, 학생에게 환심을 사려고 교과서도 공짜로 배분하는 경우 등등 그 사례는 많다. 이외에도 과다하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학생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도 있다. 아마 각 대학마다 이러한 예는 허다할 것이다. 가끔 신문지상에조차 기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집단이나 5%는 엉터리라는 말이 있지만, 아마 교수 집단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교수는 그 사회에서 선택받은 집단이기에 단 한 명도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직업적 윤리란 자기의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집착하는 것이다. 각 교수는 자신의 직업 윤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도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수의 윤리 강령을 만들어 봄이 어떨까 한다.

4) 스스로를 評價할 수 있는 教授

모든 전문가는 자신이 전문가라면 자기가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질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권장하고 싶은 것은 수업을 했으면 그 수업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는지를 교수 자신이 평가를 받을 아량과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과 대학교수'라는 워킹을 가졌고 거기에서 수업 평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젊은 교수가 다가와 재미있는 말을 해 주었다. 자신은 미국에서 늘 수업 평가를 해왔기에 여기서도 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한 선배 교수가 불려서

야단을 치더라는 것이다. "네가 수업 평가를 받으면 우리 모두 해야 되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었다고 한다. 그 젊은 교수는 당혹감에서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그 뒤 수업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풍토가 문제가 된다. 수업 평가란 그 말처럼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다. 교수 자신의 향상을 위한 것이며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약점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수업을 한 자신의 모습, 교과 내용, 설명, 과목 편성 등이 학생들의 태도와 학습 등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알아 보고 잘못되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 평가는 예방적이며 치료적이다. 그러나 수업 평가가 인사 관리에 사용되는 것을 필자도 반대한다. 이 평가를 위한 도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교수 스스로 강좌의 목적, 학생의 반응과 만족도, 수업 전략의 개발 등에 관한 질문을 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문제를 찾아 고치는 것이 그 교수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다같이 좋은 일이다.

5) 講義를 향상 準備·組織하는 教授

강의를 미리 준비하고 조직하며 학습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 자신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① 강의 내용을 노트 정리하듯이 해 두며 대개는 한 줄씩 떼어 두어, 후에 그 부분에 첨가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한다.

② 가능하면 문장화하며 설명할 개념과 예까지도 기록한다.

③ 여하한 경우도 기억은 믿지 말도록 한다. 기억에 의존할 때는 반드시 막힐 때가 오며 강의를 어색하게 만들 때가 많다.

④ 과목에 관련된 여러 매체 자료를 개인적으로 수집해 둔다(예: 방영된 비디오 자료, 신문 기사 또는 논문들). 외국에서는 교수 매체 자료실이 있어 과목에 필요한 자료가 다 있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되어 교수 개인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⑤ 시험 문제는 아이템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근래에는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문항 자료를 수집·보관·분석할 수 있다. 이제는 교수가 시험 때마다 문제를 내는 고생은 덜어야 한다. 어차피 일생을 같은 일을 할 바에야 관련된 평가 자료를 묶어 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문항을 수정할 수도 있고 대학 간 수업 비교도 된다.

⑥ 교과서는 한 가지를 3년 이상 쓰면 좋지 않다. 그 교과서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고 관련된 시험 문제가 유출되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학생들도 선배 노트를 빌려 보기 때문에 결석도 많아지고 교수도 도전이 없다. 필자 개인으로는 거의 매년 교과서를 바꾼다. 바꿀 수 없을 때는 새로운 읽을거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⑦ 시험을 보았을 경우 그 결과를 가장 빨리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대개는 중간 시험 답안지를 학기말까지 갖고 있다가 채점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내기 쉽고 채점은 귀찮은 논문식일 경우 더욱 그렇다. 옛날처럼 ‘...에 대해 아는 바를 쓰라’는 식은 요즘은 교수의 게으름을 상징한다. 즉, 평가 문제를 만드는 데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험은 적게 자주 보는 것이 좋다. 중간 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은 그 과목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지 시험이 자주 있으면 하나쯤 실패해도 최종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⑧ 임기응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급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밀어 부치다가 실수하는 예도 많이 보았다. 특히 갓 학위를 받고 온 교수들이 수업에 들어가 여기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 경험한 식으로 몰아 부치는 경우 서로 걸도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날 그때 그 장소의 분위기가 교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때 임기응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수업 준비를 못했을 경우 아예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길이 열린다. 데모가 심한 날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것을 쓰다듬어 줄줄도 알아야 한다. 강의도 경분을 속일 수 없다. 선배 교수에게 충고를 듣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⑨ 항상 유모어를 잃지 않도록 한다. 한두 마디의 유모어는 학습 분위기를 쇄신하며 좋은 유

모어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때로는 이 유모어나 풍자가 학생들의 뇌리에 박혀 훗날 우리에게 되돌아 오기도 한다. 내가 가끔 밀도 끝도 없이 내뱉는 말들이 있다. 상황에 맞추어서 “야, 인생은 앞을 보고 사는거야. 왜 뒤를 보나? 뒤는 화장실에서나 보는거야”, “교육에 속지마. 자기가 뜻을 세워서 하는거야” 등등.

적으려면 한이 없겠지만, 어떤 것은 내 꾸념이고 어떤 것은 풍자이고 어떤 것은 교훈적이다. 그저 누군가 들어 주기를 바라고 웃음이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6) 敎職을 사랑하는 敎授

교수도 사람이라 늘 잘할 수는 없다. 잘못할 경우도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두드러진 특징인가이다. 실수는 스스로 빨리 용서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강의가 무척 하기 싫은 날도 있고, 하느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느낌이 오면 괴롭고 창피하며 숨어버리고 싶은 때도 있다. 그러나 필자 개인으로는 강의와 수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교수가 갖는 특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서로가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직이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씩 속아서 살고 교직은 그저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해야 한다.

3. 大學當局

대학 당국이 강의를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이 많다. 과거 우리가 처해 온 국내 상황이 대학을 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한 점도 많다. 이제 과거의 설겅이도 끝내고 새 발에 새 국을 끓일 때이다. 몇 가지 대학이 생각해야 할 점을 적어 보기로 한다.

① 大學當局의 行政은 그 모든 결정이 수업을 위한 것이다. 감히 외람되게 말하건대 문교 행정은 교실을 위해서 있고 대학은 교수의 수업을 위해 있다. 대학의 재정·회계·관리 등 모든 행정적 결정은 궁극적으로 수업을 위한 것이며 교육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 판단 기준이 보편화될 때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 반성을 해야

한다.

첫째, 대학 관리·사무직은 교수의 수업 활동 지원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믿고 싶지만, 대학 직원 노조가 수업에 우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방해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노조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지만, 교육을 능가하려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결정이 크건 작건 간에 교육적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교수에게 맡겨져야 한다.

둘째, 교수는 교수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전문가는 그 전문 분야의 동료로부터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의사의 진단은 동료 의사에 의해, 전기 기술자는 동료 기술자들에 의해 그 일의 질이 평가되어야 한다.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교수의 활동은 교수들에 의해 평가되고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직에 의해 간섭받고 있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신문지상을 장식한 대학 관련 기사는 우리를 무척 우울하게 한다. 대학의 풍토는 수업이 최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學風이라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대학은 어떤 형태로든 교수 수업 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의 움직임이 다분히 정치적이어서 교수 수업 평가제가 갖는 부작용을 우려해 실행 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하고 있기에 머지않아 열병처럼 퍼져 나갈 공산이 크다. 학생이 나서기 전에 교수들 스스로가 또는 대학 당국이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교수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수업 매체 센터(instructional media center)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대학의 기본 시설은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지식의 基地(base)이다. I.M.C는 수업의 基地이다. 다양한 수업 자료의 준비·제작·보관·대여가 핵심 활동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 분야가 제대로 되어 있는 대학은 없으며, 전문 분야의 특정한 의과 계통에서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목별로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사업성도 있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약 400개 정도 되는 학과가 200개 정도의 대학에 퍼져 있다. 과별로 약 4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적어도 비슷한 과목의 수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각 과목에서 필요한 매체 자료의 개발은 질의 향상과 평준화에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대학은 교수 중심의 교육과정이지 아니다. 프로그램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수업은 학과목 설정에서 시작된다. 개설된 과목이 없다면 그 과목은 가르칠 수 없다. 문제는 어떤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가이다. 학과의 특성상 그 학과에 맞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차 내부에서 보면 교수가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 학과의 프로그램보다는 교수의 기호에 맞게 교수가 개설하는 과목이다. 이것이 도가 지나칠 경우 학생은 방향 감각을 잃고 너무 편파적이 된다. 그러가 하면 교수는 자기가 담당할 과목은 마치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자기 것으로 알며, 결코 그 과목을 내놓지 않으며, 강사도 자기가 고르려고 하는 철저한 분배식이다. 이것은 교수를 외딴지게 하고 학생에게 편향성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개론 과목은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팀티칭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더 우기 개론 과목은 초교수에게 맡겨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 권위나 매력울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⑤ 선택 과목을 늘려야 한다. 학생이 선택하는 폭은 아주 좁다. 대개는 계열별 선택이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 말은 선택이지만, 대개는 강요된 선택이라 의미가 없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자연히 부실한 과목은 기피하게 되고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학생이 그만큼 자기에게 맞는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실험대학 운동을 일으켜 졸업 학점을 140으로 낮추었는지 알 수 없다. 실험대학은 실험으로 끝나고 學點만 줄여 놓고 결국 學校 운영자만 도와준 셈이다. 제한된 학점과 좁은 선택 폭은 기존의 관행을 고정화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⑥ 대학은 조교 제도를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

교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수를 잡다한 사무적인 일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연구 조교, 교육 조교, 사무 조교 제도가 확충되어 학생에게는 고용과 교수 훈련을, 교수에게는 업무량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 연구 조교와 교육 조교의 도움 없이 교수의 수업 개선은 어렵다. 그럴 시간의 여유가 없고, 읽어 줄 수 없으니 레포트 제출받기도 어렵고 받아 본들 제출 여부를 확인할 뿐 고쳐 줄 수 없다. 결국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대충대충 넘어가는 定型化(stereotype)에 빠지는 예도 있다. 교수별 교육 조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⑦ 教授의 數를 늘려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과별 교수 수가 적어 교수의 담당 과목 시간 수 및 기타 업무량이 과중하다. 여러 가지 일에 넓고 얇게 퍼져 있어 좁고 깊게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한 현재 학위를 받고 대학에 들어오지 못한 교수 요원이 급증하고 있다. 어떻게 교수의 수를 늘릴 수 있는가는 대학 재정과 직결되어 있다. 창조금 일확제라든가 교수 봉급을 동결해서라도 교수 증원을 꾀해야 할 것이다. 교수의 증원 없이 교수 업무량을 줄일 수 없고, 마

라서 수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없을 것이다.

⑧ 大學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지만, 이를 위해 무엇보다 敎權이 수호되어야 한다. 일부 學生의 要求에 밀려 學事日程이 左之右之되고 총장실이 못질 당하고 교수를 밀어내며 교실 옆에서 복치고 장구치는 속에서 敎權이 수립될 수는 없다. 敎權의 守護는 教授 자신의 責任이지만, 더 이상 學校가 學生들에 의해 밀려다닐 수는 없다.

⑨ 大學間 協力體制의 개발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外國 大學의 경우, 대학별 학점 교류와 학년 교류가 상례화 되고 있다. 이제는 국제화 추세에 있다. A대 학생이 B대학에 가서 1년을 다닐 수 있다. 이것은 대학 간의 수업의 질에 대한 신뢰와 대학별로 특성화된 과가 있어 어느 대학이 일류냐가 아니라 어느 과, 어느 교수 또는 어느 프로그램이 좋으나에 따라 서로 개방·교류한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가지면서 대학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서로 개방하여 學生에게 길을 터 준다. 우리도 이러한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서 대학 간에 세칭 일류와 이류의 벽이 허물어지고 통합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